**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2018년 3월 29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 저녁 이 미사를 시작으로 파스카 성삼일이 시작됩니다.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기 전까지의 일들을 성삼일 전례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하고 기억합니다.

때는 유다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명절 중에 하나인 파스카 축일이었습니다. ‘과월절’이라고 하죠. 영어로 Passover 입니다.

과거, 유다인들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이집트를 떠나기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지방에 발라 놓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유다인들의 집은 아무 재앙이 닥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안에는 맏아들이 모두 죽는 재앙이 닥칩니다. 그래서 놀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살이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죠.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피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영어로 Passover, 즉 ‘건너감, 지나감’을 의미하는 ‘파스카’라는 단어를 이 명절의 이름으로 붙였고, 이 명절을 유다인들은 최고의 명절로 지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이 파스카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파스카 명절의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파스카 명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이 명절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죄에 갇혀 있는 하느님의 백성이 해방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 목요일의 미사는 바로 그 파스카 명절의 저녁 식사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최후의 만찬’을 재현합니다. 지난 주일에 성지 주일을 지냈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깁니다. 올리브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오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하고 외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날 밤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식사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저녁 식사를 오늘 미사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당시 유다인들의 전통이었지요. 밖에서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정결예법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 하는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 하나 씻어 주십니다. 당시에는 가죽으로 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맨발로. 그렇게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니까 발이 먼지, 흙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어찌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고 하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 하나 씻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마지막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우리가 지금 거행하고 있는 미사의 첫번째 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빵을 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하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잔에 채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직도 우리는 미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그렇게 마지막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결국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됩니다. 내일 우리가 하는 전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성 토요일 저녁 미사가 예수님 부활의 구원사적인 의미를 재조명해보는 장엄한 미사가 됩니다.

이 성삼일 전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의 3일간을 그대로 재현해보면서, 기억하는 전례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려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유언으로 남기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할 사명입니다. 사랑의 실천. 각자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대로, 서로 사랑합시다. 제발. 서로 용서합시다. 제발. 그리고 서로 화해합시다. 제발.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따지지 마시고, 좀더 자비롭고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해 주고 축복해주면서 삽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